

# 단국대학교 202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 인문계열 문제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배턴을 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찬란한 존재다. 그러나 토스카니니 같은 지휘자 밑에서 플루트를 분다는 것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다 지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콘서트 마스터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에서 각자의 맡은 바 기능이 전체 효과에 종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신뢰감이 거기에 있고, 칭찬이거나 혹평이거나 내가 아니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자기의 악기가 연주하는 부분이 얼마 아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주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 서운할 것은 없다. 남의 파트가 연주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음(無音)의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베이스볼 팀의 외야수(外野手)\*와 같이 무대 뒤에 서 있는 콘트라베이스를 나는 좋아한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스케르초(scherzo)’의 악장 속에 있는 트리오 섹션에는 둔한 콘트라베이스를 째짤매게 하는 빠른 대목이 있다. 나는 이런 유머를 즐길 수 있는 베이스 연주자를 부러워한다. 「전원 교향악」 제3악장에는 농부의 춤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서투른 바순이 제때 나오지 못하고 뒤늦게야 따라 나오는 대목이 몇 번 있다. 이 우스운 음절을 연주할 때의 바순 연주자의 마음을 나는 안다. 팀파니스트가 되는 것도 좋다. 하이든 교향곡 94번의 서두가 연주되는 동안은 카운터 뒤에 있는 악방 주인같이 서 있다가, 청중이 경악(驚愕)하도록 갑자기 북을 두들기는 순간이 오면 그 얼마나 신이 나겠는가?

\* 외야수(外野手) : 야구에서 외야를 지키는 우익수·좌익수·중견수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스케르초(scherzo) : 베토벤이 미뉴에트 대신 소나타, 교향곡 등의 제3악장에 채용한 3박자의 쾌활한 곡.  
출처 : 이상형 외, 『고등학교 국어』(출제진 재구성)

[나] 파리 리옹역 동북쪽 바스티유 광장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도메닐 거리에 ‘예술의 다리’라 불리는 비아뒤크 데 자르가 있다. 고급 상가들이 들어선 멋진 예술의 거리로 유명한 이곳도 원래는 고가 철도의 폐선 부지였다. 1970년대에 철도 운행이 중단되어 폐허처럼 남겨진 이곳에 대해 개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파리시와 지역 주민이 개발 방향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1990년 파리시 의회는 비아뒤크의 재개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세 시대 때부터 다양한 공예품을 제조하던 이 지역의 역사성을 살려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한 채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하자고 의견이 모였다. 그 결과 1995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약 1년 만에 비아뒤크 데 자르의 재탄생이 이루어졌다.

1킬로미터에 달하는 상부 철길은 나무와 꽃이 우거진 산책로로 바뀌었고, 철길 하부 10미터 높이의 아치형 공간은 고급 상가로 개조되었다. 고급 상가에서는 미술품, 패션, 전시 기획, 조명 기구, 자수, 무대 장치, 귀금속, 유리 공예, 고급 가구, 디자인 용품 등을 판매하거나,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전시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낡은 건물이나 시설, 장소를 싹 쓸어내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의 구조물을 거의 그대로 둔 채 조금씩 덧붙이거나 고치고 다듬어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중국 베이징에 가면 초고층 빌딩 사이사이 아주 오래된 가게들을 볼 수 있다.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오래된 건물과 가게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어찌

면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이 예의이고 도리일 테니까. 그런 맥락에서 중국인들은 예부터 오래 된 가게를 존중해 왔다. 베이징시와 중국 정부는 100년 이상 된 가게에 ‘라오쯔하오’\*라는 명패를 달아 준다. 이 명패가 걸린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면 ‘내가 지금 100년 된 가게에서 밥을 먹는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 라오쯔하오 : 노포(老鋪).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있는 가게라는 뜻의 중국어.

출처 : 고희진 외, 『고등학교 독서』(출제진 재구성)

[다] “천지간 생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 저 금수(禽獸)나 초목(草木)은 지해도 깨달음도 없으며, 예법도 의리도 없습니다. 사람이 금수보다 귀하고 초목이 금수보다 천한 것입니다.”

실옹(實翁)은 고개를 젓히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진실로 사람이로군. 오륜(五倫)\*과 오사(五事)\*는 사람의 예의(禮義)이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불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며, 떨기로 나서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이다. 사람으로서 만물(萬物)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지만 만물로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하다. 하늘이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 마찬가지다. 대저 만물은 지혜가 없는 까닭에 거짓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까닭에 하는 짓도 없다. 그렇다면 만물이 사람보다 훨씬 귀하다. 또 봉황(鳳凰)은 높이 천 길을 날고 용(龍)은 날아서 하늘에 있으며, 시초(蓍草)\*와 울금초(鬱金草)\*는 신(神)을 통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재목으로 쓰인다. 사람의 부류와 견주어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냐? 대개 대도(大道)를 해치는 것으로 자랑하는 마음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만물을 천하게 여김은 자랑하는 마음의 근본이다.”

“봉황이 날고 용이 난다 하지만 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초와 울금초와 소나무와 잣나무는 초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은 백성에게 혜택을 입힐 인(仁)이 없고, 세상을 다스릴 지(知)가 없으며, 복식·의장의 제도와 예악(禮樂)·병형(兵刑)의 정사(政事)도 없거늘, 어찌하여 사람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까?”

“너의 미혹(迷惑)\*이 너무도 심하구나.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음은 백성을 위한 용의 혜택이며, 참새를 겁나게 하지 않음은 봉황의 세상 다스림이다. 다섯 가지 채색 구름은 용의 의장이요, 온몸에 두른 문채는 봉황의 복식이며, 바람과 우레가 떨치는 것은 용의 병형이고, 높은 언덕에서 화(和)한 울음을 우는 것은 봉황의 예악이다. 시초와 울금초는 종묘 제사[廟社]에서 귀하게 쓰이며, 소나무와 잣나무는 동량(棟樑)\*의 귀중한 재목이다. 이러므로 옛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입히고 세상을 다스림에는 만물에 도움 받지 않음이 없었다. 대체로 군신(君臣) 간의 의리는 벌[蜂]에게서, 병진(兵陣)의 법은 개미[蟻]에게서, 예절(禮節)의 제도는 박쥐[拱鼠]에게서, 그물 치는 법은 거미[蜘蛛]에게서 각각 취해 온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聖人)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느냐?”

이에 허자(虛子)가 크게 깨달았다.

\* 오륜(五倫) :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 오사(五事) : 외모는 공손해야 하고, 말은 조리 있어야 하며, 보는 것은 밝아야 하고, 듣는 것은 분명해야 하며,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

\* 시초(蓍草) : 톱풀.

\* 울금초(鬱金草) : 울금, 강황.

\* 미혹(迷惑) : 정신이 헛갈리어 갈팡질팡 해냄.

\* 동량(棟樑) : 마룻대와 들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출처 : 홍대용, 「의산문답(鰲山問答)」

[문제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설명하고, [나]와 [다] 각각의 관점에 따라 [라]에 대해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인간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추구하며, 심미적 즐거움으로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고 싶어 한다. 이에 인간은 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을 창작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와 같은 활동을 예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예술은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예술은 도덕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한다. 도덕적 감수성은 도덕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고하는 능력으로, 공감 능력의 바탕이 된다. 예술 활동은 정제되지 못한 감정과 욕구를 정화하여 자신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하며, 타인의 감정과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공감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다.

또한, 예술은 삶을 통찰할 수 있게 한다. 예술은 자신의 삶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미적 표현이므로 삶과 세상의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예술은 인간과 사회가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예술의 자유로운 표현 기법은 다양성의 토대가 되며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불러온다.

출처 : 정탁준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예술은 창작자와 관람자 사이의 상호 작용과 소통을 전제로 한다. 예술가는 예술 작품을 통해 관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람자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창작자와 소통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예술 작품이 관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미적 가치[美]와 도덕적 가치[善]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때 의미가 있다는 도덕주의 입장이 있다. 반면,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독립된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예술 지상주의 입장이 있다.

출처 : 김국현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예술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정을 소통시키는 한 수단이며 따라서 진보, 즉 인류가 완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한 수단이다. 언어는 지금 생존해 있는 현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세대와 동세대의 선구자들이 경험과 사색으로 알아낸 일들을 모조리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예술도 또한 지금 살아 있는 최근 시대 사람들에게 옛날 사람들이 경험한 감정이나 현재의 뛰어난 선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모조리 경험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진보하여 보다 진실하고 필요한 지식이 그릇되거나 불필요한 지식을 추방하여 이에 대치되는 진실한 것과 필요한 지식으로 바꾸는 것처럼, 예술에 의한 감정의 발달도 저급하고 불량하며 또 사람들의 행복에 불필요한 감정을 보다 선량하고 이 행복에 보다 필요한 감정으로 추방한다. 여기에 예술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내용면에서 볼 때, 예술은 이 임무를 다하면 다할수록 점점 좋은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앓을수록 점점 나쁜 것이 된다.

출처 :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다] 19세기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니체가 말한 삶은 생생하게 작동하는 현실의 삶이다. 그는 ‘인간의 삶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철학, 윤리, 종교 등은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철학은 진리를 내세워 개념의 겹질에 인간을 가두어 버리고, 윤리는 당위를 통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현실의 삶을 포장하며, 종교는 인간이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현실 너머의 문제에 집착하게 한다. 그는 이러한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오직 미학, 즉 예술을 통해서만 인간의 삶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것이 니체 초기 미학의 핵심 주제인 ‘예술가-형이상학’이다.

니체는 ‘예술가-형이상학’과 관련하여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면서도 근원적인 예술 충동으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제시했다. 아폴론적 예술 충동은 형상과 형태를 만들고 기준이나 틀을 규정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충동에 의해 인간은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되게 만들어 주는 ‘개별화의 원리’를 사용하여 구분 가능하고 산정 가능하며 인식 가능한 조형 세계를 만들어 낸다.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은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 안에서 무매개적으로 솟구치며 어떤 형태나 경계를 만들지 않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지향하는 것이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도취’와 관련지어 설명했다. 도취는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개체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에 의해 인간은 세계의 근원적 모습과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도취는 개별화의 원리를 붕괴시킨다.

\* 아폴론 :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의 신으로 법, 질서, 이성을 상징.

\* 디오니소스 :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술의 신으로 무질서와 도취를 상징.

출처 : 『국어영역 독서』(출제진 재구성)

[라]



고흐, <감자먹는 사람들>

요점은 이거야. 나는 등불 아래 감자를 먹는 이 사람들이 접시로 들이미는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사실을 캔버스에 옮겨 보려 애쓴 거야. 그렇게 육체노동으로 정직하게 양식\*을 얻었음을 말하고 싶었어. 우리네 교양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그림에 담고 싶었지. 이유는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삶에 감탄하고 인정하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나는 농민을 관례에 따라 부드럽게 그리기보다는 투박한 모습 그대로 그리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을 굳히게 되었지. 날씨와 풍광에 색이 바래 미묘한 모습을 띠게 된 누더기에 껌죄죄한 파란 치마와 조끼를 걸친 시골 처녀가 도시 숙녀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 하지만 숙녀처럼 차려입는다면 그녀의 참모습은 사라져 버리겠지. 작업복을 입고 들에 나온 농부는 신사의 외투 같은 것을 걸치고 주일에 교회에 갈 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여.

농촌 생활을 관례에 따라 곱게 다듬어 그린다면 잘못된 거야. 시골을 그린 그림에서 베이컨과

연기, 감자 삶는 김 등의 냄새가 나아 좋지. 불결한 게 아니거든. 외양간에서 거름 냄새가 진동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어. 밭에서는 밀이 익어 가거나 감자나 퇴비, 거름 냄새가 나는데, 이런 도시민들에게도 유익할뿐더러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농촌 생활을 그린 그림이 향수 냄새를 풍기면 되겠어?

……(중략)……

농촌 생활을 그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아. 또 예술과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반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을 그리려 애쓰지 않았다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비판해야겠지. 밀레\*, 드 그루\* 등 많은 이들이 “더럽고, 천하고, 쓰레기 같고, 악취가 난다.”라는 혹평에 흔들리지 않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잖니.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면 수치스럽겠지. 안 돼,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가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해.

지금의 화가들 모습은 도움이 안 돼. 나는 번번이 농부들이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많은 점에서 교양 있는 세계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말이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술이냐 여타 많은 것을 알아야 하겠니?

\* 양식(糧食) :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먹거리.

\* 밀레 : 장 프랑수아 밀레(1814~1875). 프랑스의 화가. 농민에 대한 애정으로 농촌의 모습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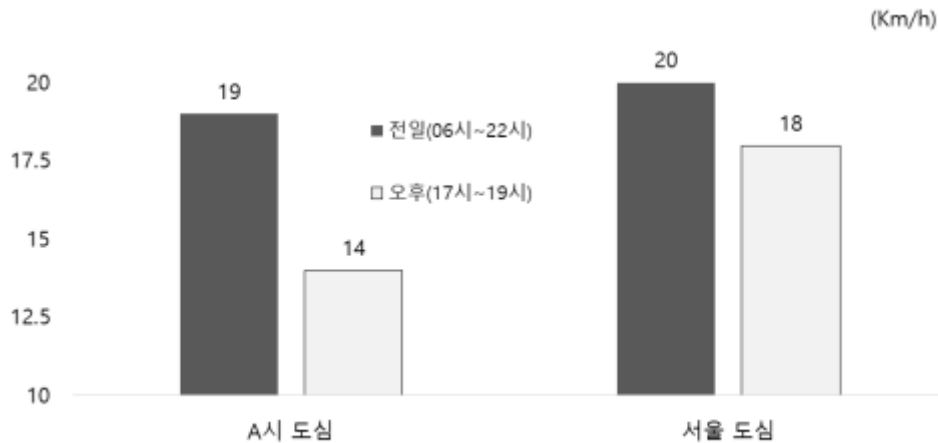
\* 드 그루 : 샤를 드 그루(1825~1870). 벨기에의 화가. 밀레를 존경하여, 직접 현장에 나가 농부들의 모습을 그렸다.

출처 : 방만호 외, 『고등학교 독서』

[문제 3] [가], [나], [다]를 서로 연관 지어 설명하고, [다]의 각 문제에 가장 적절한 [라]의 설명 하나를 찾아, [다]의 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시오. (단 각각의 문제에 대응하는 [라]의 설명은 서로 달라야 함.) (600자 내외) (40점)

[가]

<A시와 서울시 도심의 자동차 평균 속도 비교>



출처 : 『○○의소리』, 2016. 8. 29.

<A시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자동차 등록 대수	334,426	384,117	435,015	467,243	500,197	553,578	596,215	615,342	658,594

출처 : ○○통계포털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

	전국	A시
2010	0.36	0.44
2019	0.46	0.89

<세대당 자동차 등록 대수>

	전국	A시
2010	0.90	1.12
2019	1.05	2.03

출처 : 지방통계청

<A시 관광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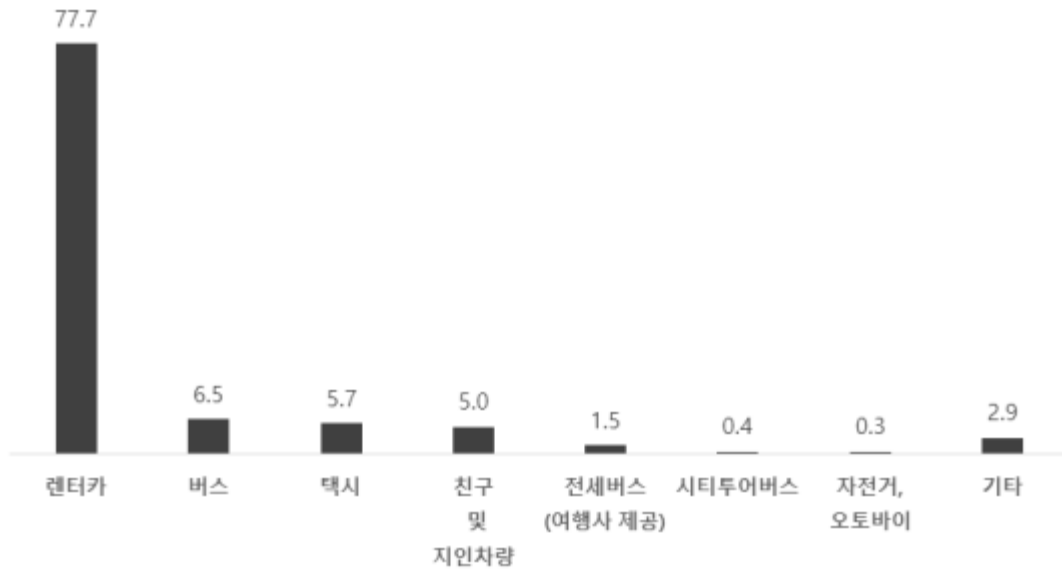
시기	2021년 1월	2021년 2월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5월
관광객 수	46만 8,016명	79만 3,768명	89만 3,326명	108만 2,861명	113만 6,452명

출처 : ○○관광협회



<A시 방문 시 주요 이용 교통 수단>

(단위 : %)



출처 : ○○관광공사 보고서(2020)

<A시 전체 교통사고 중 렌터카 사고 비율 추이>

(단위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중	8.6	9.2	8.8	11.3	11.9	11.9	12.1	13.8	12.3	13.4

출처 : ○○경찰청

[나] A시는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시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A시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만들어 렌터카 수급 계획 수립,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등을 거친 뒤 9월 말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한다. 현재 3만 2,100여 대의 렌터카를 1차적으로 2만 5,000대 규모로 감축할 계획이다. 1차 감축 목표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A시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A시 차량 적정 대수 산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용역 보고서에서 A시 지역 시가지 교통 체증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렌터카가 지목됐으며 수급 조절을 하지 않으면 2025년 5만 1,000여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종전 A시 지역에서 차량 100대 이상, 차고지 등을 확보하면 렌터카 사업 신고를 했지만 수급 조절 계획에 따라 당분간 신규 렌터카 사업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차량 초과 렌터카의 신규 보충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 기한이 넘은 차량을 폐기하고 신규로 보충하지 않으면 내년에 7,000여 대가 줄어든다. A시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총량제 시행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시장 질서도 바로잡을 수 있다.”며 “이번에 A시 전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권한도 넘겨받으면서 교통 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18. 3. 6.



[다] (문제 1)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7월 말~8월 초 성수기 기준 A시 중형차 렌터카 비용은 평균 1박당 17만~23만 원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로나 이전에는 10만 원에도 대여가 가능했던 것이 두 배 이상 뛰어오른 셈이다. A시 B렌터카 업체의 경우 C차량 기준 6박 7일 대여 요금이 130만 원에 달한다. 예년보다 30~50%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추산이다.

……(중략)……

A시 렌터카 비용이 폭등한 것은 A시 관광객 수요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렌터카 총량제’로 공급은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에만 1,200만 명이 제주를 찾았고, 올해도 이미 500만 명이 방문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500만 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관광 수요가 상당히 회복된 셈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22. 6. 11.

(문제 2)

렌터카 총량제가 멈춰 버린 이유는 일부 기업들이 자율 감축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A시가 패소하면서 강제할 수단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A시는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자율 감축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게 운행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법적 소송에서 패소해 강제할 수단을 잃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A시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렌터카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체들의 감축 참여도 저조해졌다. A시는 자율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관광 진흥 기금 감면 제한, 셔틀·전기차 보조금 제한 등의 패널티를 주고 있지만 차량을 줄이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게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감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 『○○일보』, 2022. 5. 5.(출제진 재구성)

(문제 3)

A시는 렌터카를 줄이기 위해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대형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지역 소규모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략)……

A시는 감차 비율을 업체 규모별로 100대 이하 0,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350대 23 등 차등 적용하는 방식(총 12등급)으로 정했다. 그러나 A렌터카와 B렌터카, C렌터카, D렌터카, E렌터카 5개 대형 자동차 대여 업체는 지난 15일 A시를 상대로 차량 운행 제한 공고 처분 등 취소 소송과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5개 업체를 포함해 대기업 영업소 9개사가 A시 감차 정책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대형 업체일수록 자율 감차 부담이 커진다는 A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렌터카 감차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소형 렌터카 업체들은 대형 렌터카들이 공익을 뒷전에 두고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출처 : 『세계일보』, 2019. 5. 23.

[라] (설명 1)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놓고 집단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지역에 사회적 자원이 불공정하게 분배되어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다. 소통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만한 관계는 물론 공공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주제를 두고 소통이 부족하거나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결론이 나면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사회 갈등은 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물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설명 2)

어떤 상품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이 많이 감소하는 반면, 어떤 상품은 가격이 많이 올라도 수요량에 별 변화가 없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과 같으면 단위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품의 특성, 대체재의 존재, 가격 변동에 수요자가 대응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필수품이거나 대체재가 적은 상품보다 사치품이거나 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또한 가격 변동에 수요자가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수록 갑자기 소비 습관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수요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출처 : 허수미 외, 『고등학교 경제』

(설명 3)

경제적 유인이란 금전적 보상이나 벌금과 같이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어떤 행동의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편익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유인이 주어진다면 그 행동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시장 경제에서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은 가격, 임금, 이윤, 보조금,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이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들은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 또는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편익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한다.

출처 :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